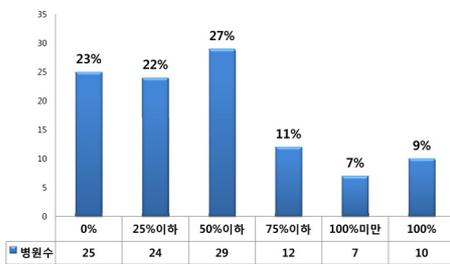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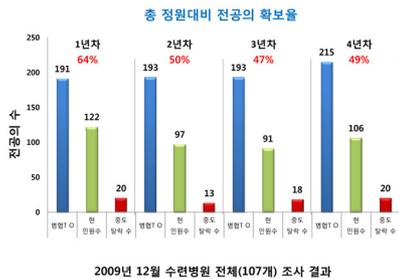
전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조사현황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목)부터 12월 28일(월)까지 전국 의과대학 및 산부인과 수련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총 107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의 결과는 대한병원협회가 제공한 전공의 TO현황과 해당병원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를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총인원 현황과 전공의 남녀비율, 지역별 수련병원 수와 전공의 수, 병원별 전공의 확보율, 연차별 전공의 확보율 등 현 시점에서 산부인과 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 있는 여러 지표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107개 병원별 전공의 확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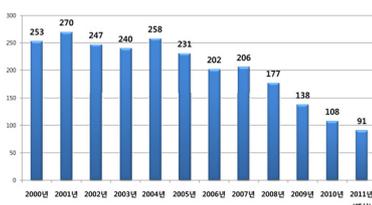
한국의 산부인과 전공의 총인원 현황



산부인과 전공의 남녀 비율

	총인원	여자	남자	남자 비율
1년차	122	106	16	13%
2년차	97	86	11	11%
3년차	91	76	15	16%
4년차	104	82	22	21%

년도 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 (2000년 ~ 2011년)



본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총 107개 수련병원 중 25개 병원은 1~4년차 전공의가 한명도 없었으며 이들 수련병원은 산부인과 병동 야간 당직을 다른 진료과목 인력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공의 확보율이 25% 이하인 곳이 24곳, 50% 이하인 곳이 29곳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곧 수련병원의 78%가 전공의 확보율이 50% 이하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전공의 확보율이 75% 이하인 곳이 12곳, 100% 미만인 곳이 7곳, 100%인 곳은 수련병원 10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은 전공의 확보율이 72%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지만 경인지역은 33%, 지방은 42%에 불과하여 지방의 진료 공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련과정 중 회의를 느껴 산부인과를 중도 포기하거나 전과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정원의 50~60%정도이고 이마저도 매년 약 10~20여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중에는 20명, 3년차 중에는 18명, 2년차 중에는 13명, 1년차 중에는 20명이나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였다. 무려 7명이나 중도에 포기한 것이다. 한가지 더 염려되는 사항은 남자 전공의 수가 한 해에 1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250여명 정도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해 2010년에서 108명이었고, 향후 2011년에는 9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산부인과 의원들의 폐업과 수련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전공의들로 인해 야간으로 서비스 공백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자료에서 나타나 듯 전공의가 아예없는 수련병원이 속출하고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급증 하면서 머지않아 임신부가 분만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극단의 경우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분만실 및 응급실 당직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총 107개 수련병원의 전체 병상수, 분만실 운영 여부, 산부인과 병동 야간 당직의 현황, 응급실 산부인과 1차 진료의 현황, 분만실 야간 당직의 현황을 설문하여 회신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재 산부인과 수련병원 중 4개의 병원이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병동에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혀 없는 경우가 24%나 되었으며 44%에서도 산부인과 전공의는 병동 당직의 일부만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실 야간 당직에 있어서도 산부인과 전공의가 1차 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은 49%에 불과하였다. 분만실 야간 당직은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담하고 있는 병원은 32%에 불과하였고 26%에서는 아예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어서 전문의나 인턴 타과 전공의 등이 당직을 서고 있으며 6개 병원에서는 야간 분만을 아예 못하고 2개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조산사가 당직을 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만실을 교수 등 전문의가 전담하는 병원은 16%이고 일부 참여하는 병원은 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병원에서는 교수 등 전문의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낮에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의 증가와 산부인과 전공의 인력난은 급격한 출산을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고 또한 의료 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지원이 전무하여 산부인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산부인과 **병동 야간 당직** 의사는?



응급실 산부인과 응급환자에 대한 1차 진료 의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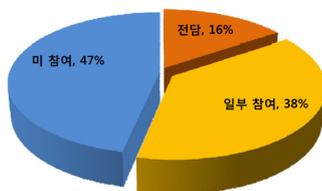


분만실 야간 당직 의사는?



- 인턴, 타과 전공의 당직: 3개 병원
- 간호사, 조산사 당직: 2개 병원
- 야간 분만 포함: 6개 병원

전문의(교수 등)의 **분만실 야간 당직** 현황



학회소식

<제 3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질환 워크숍> 성료

지난 1월 24일(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대회의실에서는 <제 3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질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저출산·저수가 등 산부인과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산부인과 진료도 여성토탈케어에 향해 나아가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유방과 갑상선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실질적인 측면에 권위있는 전문가의 강의를 마련되었으며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물론 산부인과 전공의와 관심있는 타과의 전문의까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호응을 얻었다. Introduction to breast and thyroid disease, Diagnostic imaging of breast and thyroid, Techniques for tissue diagnosis of breast and thyroid disease, Management of breast and thyroid disease, Hands-on workshop of Mammotome and ultrasonography-guided biopsy의 다섯 개 세션에서는 유방 및 갑상선 질환의 개요, 영상의학적 진단, 조직학적 진단, 내과적 수술적 치료 및 유방클리닉 운영의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졌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 진행된 본 행사는 특히 광주 은병원 은대숙 원장의 맘모톰시술 현장 시연을 통해 유방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술기를 배울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학회는 회원들에게 유방질환 진료에 관한 유익한 정보 교류와 지식 전달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10년 1월 29일 아래와 같이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을 전회원에게 배포하였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



안녕하십니까?

대한산부인과학회입니다.

최근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불법인공임신중절수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도 안내해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부터 불법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 전체회원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행모자보건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의 무료산전진료와 의료보험공단의 무료검진 등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의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회원 여러분의 진료영역의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질환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2009.1.7 공포, 2009.7.8 시행>

2010년 1월 29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용원

2012년도 제 55회 전문의고시 응시자격을 위한 논문 심사기준 변경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2년도 제 55회 전문의고시 응시자격을 위한 논문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공지하였다. 2012년도 제 55회 산부인과 전문의고시 응시에정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변경 전:

1.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해서는 수련과정 시작 후 아래 학술지에 발간된 세 편의 논문 별책을 제출해야 한다.

- 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 나) Journal of Women's Medicine
- 다) SCI(E)에 등재된 학술지
- 라) Index Medicus 에 등재된 학술지
- 마)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 바)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
- 사)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대한골다공증학회지 -대한골대사학회지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지 -대한비뇨부인과학회지
 -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지
 - 대한생식의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 대한태아의학회지 -대한폐경학회지
- 아) 이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며, 위의 기준에 해당 없는 대학교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되지 않음.

2.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은 제 1저자로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3.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또는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제 1저자 여부와 무관)

※ 변경 후:

- 1번 항목 기준과 동일함.
- 2번, 3번 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또는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 제 1저자로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편집위원회 초청강연 개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3일(수) 대한의학회 간행이사인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실 홍성태 교수님을 초청하여 <학술지의 업그레이드와 국제화>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 편집위원과 편집 TFT 위원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SCI(E) 등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강연은 학술지 등재의 기본 요건과 질적 평가기준, 구체적인 등재전략에 포커스가 맞추어 졌으며, 이를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CI(E)에 등재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흥미로운 우수논문 게재(Interesting articles), 완벽한 편집(Editorial perfection: 무오류 편집과 인쇄), 품위있는 디자인(Design excellency: 학술지의 품격과 신뢰도), SCI 학술지 인용지수(Impact factor), 자기인용비율의 적정선 유지(Self-citation rate) 등이 손꼽혔다. 이밖에도 명성있는 편집인과 편집위원의 위촉, 저명한 저자의 논문게재, 해외기관 배포, 온라인 원문제공, E-publication의 활용이 본 학회 학술지의 등재전략으로 논의 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을 통해 본학회와 자학회간 학술지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Synapse와 PubMed central 등재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지와 Journal of Women's Medicine의 SCI(E)등재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도 제 53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0.2.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 53회 전문의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산부인과는 총 108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제 3차 심사위원회 개최 (2010.1.19)

의료사안 5건 검토 완료

보험소식

1. 보건복지부 고시 2010-19 호 (개시일 2010.1.1)
 - 자 402-3 자궁내풍선카테터중전술 [자궁용적측정포함] 상대가 치점수 465,24점
 - 병원급이상 29,920원 _종별가산 전금액 / 의원급 30,380원 _종별가산전 금액
(2008년 7월 '산부인과 수가개발을 위한 신의료심포지움 1회' 중 한 건 보험 등재)
2. 산전바우처금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예정 고시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66호(2010.2.2)
3. 신DRG 의협 3차 대책회의(1/21) 및 심평원 자문단 회의(1/22) 참석
 - 이근영 병협대표위원 겸임, 류기성위원, 윤석원개의협대표위원 참석
 - 신포괄수가의 문제점 보험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 수렴하여 전달함.
4.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건강보험제도상의 명칭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예정 (통상 3차병원으로 통용됨)

행사소식

2010 대만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10년 3월 13일(토)~14일(일)
- 장소: Windsor Hotel, Taichung, Taiwan

제 62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10년 4월 23일(금)~25일(일)
- 장소: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모임

- 일시: 2010년 5월 27일(목)
- 장소: 경주 현대호텔

제 4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 일시: 2010년 5월 28일(금)~29일(토)
- 장소: 경주 현대호텔

제 4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2010.5.28(금)~29(토)

경주현대호텔

5월 28일(금)

12:00~13:00 등 록
13:00~13:05 인사말
13:05~13:10 인사말
13:10~13:30 축 사

조태호(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박용원(연세의대/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모체태아의학

13:30~13:50 양수량이상산모의처치
13:50~14:10 임신분기별 유도분만
14:10~14:30 분만중 태아심음감시에 대한 이해
14:30~14:50 임신중감염 및 처치
14:50~15:10 Discussion & Coffee Break
15:10~16:00 초청 강연

홍성연(대구가톨릭의대)
최석주(성균관의대)
박미혜(이화의대)
박중신(서울의대)

인요한(연세의대)

부인종양학

16:00~16:20 부인암 FIGO 병기체계(2008)
16:20~16:40 HPV 백신 : 현재와 미래
16:40~17:00 임신 중 부인암 처치
17:00~17:40 특별강연
17:40~17:50 Discussion
18:30~ 만찬

김영태(연세의대)
허수영(가톨릭의대)
김용만(울산의대)
TBD

5월29일(토)

생식내분비학

09:30~09:50 무월경의 진단적 접근
09:50~10:10 다낭성난소 증후군 환자의 불임치료
10:10~10:30 폐경기호르몬 치료의 오해와 진실
10:30~10:40 Discussion
10:40~11:00 초청 강연
11:00~11:20 Discussion & Coffee Break

은성호(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

일반부인과학

11:20~11:40 골반염 치료의 최신 지견
11:40~12:00 요실금 수술 후 발생한 배뇨장애의 처치
12:00~12:20 유방질환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법
12:20~12:30 Discussion

조문경(전남의대)
구천회(가천의대)
유지훈(울지의대)